

서산 보원사수륙재의 과거와 현재*

- 도량 건립을 중심으로 -

이성운**·전영숙***

• 목 차 •

- I. 서언
- II. 근대 이전의 수륙재
- III. 현행 수륙재의 양태
- IV. 결어

* 이 논문은 2021년 10월 2일 <보원사 제5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 전영숙, 세계불학원 연구원.

© 『淨土學研究』 제36집, 2021년 12월, pp.87-118.

한글요약

이 글은 서산 보원사수륙재의 과거와 현재를 밝혀 바람직한 보원사수륙재의 방향을 찾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보원사수륙재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 근대 이전의 수륙재를 살폈고, 현행 수륙재는 현재 한국불교 수륙재 현장을 비교하며 보원사수륙재의 특징을 살폈다.

근대 이전의 수륙재는 단일한 의문에 의해 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설판상황(設辦狀況)에 의거하여 결수문(結手文)·중례문(中禮文)·자기문(仔夔文) 등으로 수륙재가 설행되었고, 사찰의 주전(主殿)·양서(兩序)·정문(正門) 등에 체계적으로 설단되었으며, 의례 설행은 그 역할을 분담해 병렬로 행해졌고, 회수(會首)와 재자(齋者)가 의례의 주체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등이 과거의 의례에서는 잘 지켜져 왔을 것으로 보이며, 보원사수륙재도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보원사지에 수륙도량을 건립하고 있는 현재 보원사수륙재의 특징으로는 중앙의 상단에 괘불을 걸고, 좌측에 중단과 오로단을, 우측에 제산단(諸山壇)과 사자단(使者壇)을, 남측에 청법단(聽法壇)을 설치하고, 상단 앞자리에 회수(會首)와 재주(齋主) 자리를 마련한 도량 배치가 언급될 수 있다. 또 건단(建壇)의식에서 전통의 신중청(神衆請) 의식을 통해 괘불이운(掛佛移運)의 옹호(擁護)를 발원하고 있으며, 영혼(魂靈)을 맞이하는 영혼식(迎魂式)은 16~17세기 형식을 도입하고, 다른 재장(齋場)에서 볼 수 없는 사문소참(沙門小參: 對靈一種) 의식을 복원하고 있는 설행(設行) 등이 언급될 수 있다.

주제어

보원사수륙재, 결수문(結手文), 중례문(中禮文), 자기문(仔夔文), 제산단(諸山壇), 영혼식(迎魂式), 청법단(聽法壇)

I. 서언

한국불교의 의례 가운데 그 원형과 변용의 궤리가 일어나고 있는 의례의 첫째 자리는 수륙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나 변용이 되었을지라도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어찌면 유일한 의례가 수륙재이고, 국내에 수입되기 이전의 원형 의문이 존재하는 의례 또한 수륙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수륙재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원산지 중국불교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재회의 명칭에 나타나고 있는 ‘수륙’이라는 표현 정도를 제하고는 그 양상이나 이해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불교 수륙재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나¹⁾ 현재 한국불교에 전승되고 있는 수륙재 의례 관련 주요 의문인 『중례문』이나 『결수문』은 15세기 중반 이후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²⁾ 그렇다고 이전의 의례와 이후의 수륙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19세기 초반이 되면 ‘수륙재’라는 명칭조차 희미해지고 있는데,³⁾ 20세기에 이르자 ‘수륙재, 영산재, 각배재, 생전예수재, 상주권공’과 같은 의식을 ‘재공의식’으로 분류해 별도로 편집되기에 이른다.⁴⁾ 이와 같은 현상은 20세기 초반 ‘재공의식’으로 정리되기 이전의 19세기경에는 재공의식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삼단시식’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와

-
- 1)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 2) 송일기, 「생전예수재의 의식집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의 서지적 연구」, 『생전예수재의 불교문화』, (사)생전예수재보존회, 2020, p.35.
 - 3) 이성운, 「영산재의 구조와 실행 및 사상과 인식」, 『불교문예』 17,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21, pp.47~49.
 - 4) 안진호 편, 『석문의범』, 만상회, 1935. “四. 齋供篇” 전후에 송주편과 각소편이 자리하고 있다.

같이 수록재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 20세기 초반에 재공의식이 다시 정리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수록재의 연구는 역사적 측면의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근자에 이르러서는 설행 양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12월 삼화사·진관사·아랫녘의 수록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전후에 수록재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세 곳의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서의 수록재 양상을 다룬 박사학위논문도 2편 제출되었다.⁵⁾ 양상을 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설단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의문과 양상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불교 수록재의문의 성립 및 변용을 연구한 논문이 더러 있을 뿐이다.⁶⁾ 논자는 이 글에서 충남 서산 ‘보원사⁷⁾수록재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 아래 서산 보원사수록재의 어제는 어떠한 모습이었고 오늘의 서산 보원사수록재의 특징은 무엇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탐구해 보려고 한다. 보원사가 창건된 지는 오래 세월이 지났지만 서산 보원사수록재의 설행과 관련된 자료는 극히 미미하다. 다만 16세기 중반 수록의문이 고루 판각되었다는 사실과 그 판목이 전해지고 있다. 수록의문의 판각이나 법석의례를 위한 『묘법연화경』의 판각이 수록재의 설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16세기 중반의 보원사에는 수록재의 설행이 중차대한 불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5) 延濟永, 「한국水陸齋의 儀禮와 설행양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민속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4; 최명철, 「水陸齋의 設行樣相에 대한 比較 研究: 삼화사·진관사·백운사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6) 박영만, 「韓國水陸齋儀文의 成立 및 變容 研究」,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에서 개울을 따라 약 1.5km 북쪽에 위치한 보원사지 옆에 세워진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 말사로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4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원사 판각한 수록재 의문 관련 목판을 보관하고 있으며, 전통수록의문에 의거 2020년부터 전통수록재를 재현하고 있다.

만 그 이상의 수륙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 문제는 보원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불교의례의 실행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례나 그에 관련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여타 사찰의 수륙재 또한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현대에 실행되는 수륙재는 근·현대에 실행되는 불교의례의 양식과 인식의 바탕 아래 수륙의문을 실행하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까닭은 시식의식의 수륙재는 삼단시식으로 일반화되었고, 영산재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 영산작법은 일반 공양의식으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에 그 이름에 ‘수륙재’나 ‘영산재’라는 명칭이 부여되지 않고 ‘시식’과 ‘공양’이라는 형태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법절차”나 “제반문”이라는 형태는 법석의식과 시왕권공의 그것에 시식이 추가되면 자연스럽게 수륙법회의 형태가 된다. 한국불교계나 학계의 수륙재 이해는 수륙재의 본질과 적지 않은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의문과 현실의 문제를 살피지 않고 일부 양상을 중심으로 정의된 의미로 수륙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위로하고 천도하기 위해 佛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⁸⁾ 의례라는 정의는 한국불교학계 일반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수륙의문의 건회소나 대회소 어디를 보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만 의례를 실행한다는 언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륙재가 상례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고려말 노국공주의 상례나 1395년 왕조교체에 희생된 이들을 위해 봉행된 수륙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수륙재의 의미에 대해 오해를 유도하는 ‘수륙(水陸)’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양악의 『친지명양수륙의문』에는 “수륙사의(水陸四義)”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에는 위의 성인을 비유하며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물은 청결할 수 있고, 둘째 더러움을 벗어나게 하고, 셋째 물은

8) 안계현, 「불교행사의 성행」, 『한국사』 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5, pp.116~117, p.131.

청량하게 하고, 넷째 물은 아래로 내려가 중생을 교화할 수 있다. 육지는 범부에 비유하며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육지는 단단하고 두터워 무명에 비유하며, 둘째 길에는 살지고 파리한 것으로 인간 천상 귀신 축생 등이 비유되며, 셋째 육지에는 높고 낮음이 있어 마음의 불평등을 비유하며, 넷째 육지에는 끝이 없으므로 생사의 긴 밤을 비유한다.”⁹⁾ 그렇지만 물은 육지가 없으면 그것이 사용될 수 없고 육지는 물이 없으면 공능을 드러낼 수 없으므로 수륙은 서로 부합하여 공능과 활용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수륙의 의미에 대해서는 성인과 범부라는 비유 외에도 천신은 흐르는 물에서 취식하고 아귀는 육지에서 취식한다는 의미라고도 하므로 무주고혼을 위해 행하는 의례라는 의미는 개입될 여지가 없지 않다. 단지 조선 후기 이후 불교 내외에서 천변수륙재나 수상수륙재를 설행하게 되면서 수륙의 의미를 현재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해서 그간의 수륙재 연구는 의문이나 의궤에 의거한 수륙재의 설단과 설행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는 많지 못하다. 그 까닭은 설행과 연관되는 연구의 부재 혹은 설행 주체들의 비수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수륙재와 같은 야외 특설무대에서 행해지는 의례는 범패성과 작법무와 같은 전문적인 형식을 습득한 이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재회의 주체자들은 주체성을 잃고 단지 ‘지원자’ 정도의 위치에 머물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수륙재에서 비슷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범패성과 작법무를 습득한 이들이 상주하는 소수의 재장에만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재회를 주관하는 사찰의 회수(會首, 住持)는 법회라는 의식에서 인사 정도에 그치거나 수인(手印)법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다.

9) 戴曉雲 校點, 『天地冥陽水陸儀文校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p.5 “水陸四義.”

이와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이 글말에서는 “보원사수륙재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를 존중하면서 과거의 양태와 현재의 양상에서 그 특징과 그 의미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의 의례에 의하면 수륙재는 1주야, 3주야, 5주야, 7주야 등의 일차로 행해졌다고 보인다.¹⁰⁾ 그렇지만 단편적인 수륙재에 대한 정보나 지식으로는 보원사수륙재의 과거를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현재의 보원사수륙재에 대해 명확하게 의미를 진단하고 그 방향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해서 이 글말에서는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그간 알려진 수륙재 관련 자료 읽기를 통해 근대 이전의 수륙재의 양상을 추적하여 과거의 보원사수륙재를 추론해보고, 2020년 재현한 보원사수륙재의 양상과 의문 및 설행양태와 2021년 수륙재 준비과정을 통해 현대의 보원사수륙재의 특징과 미래를 그려봄으로써 필자에게 주어진 소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볼까 한다.

II. 근대 이전의 수륙재

근대 이전의 수륙재라고 할 때 먼저 근대라는 시대 구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것은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는 불교의례가 근대라는 시대 구분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근대와 근대 이전 시대의 수륙재가 다른가. 둘째는 이에 더해 불교의례 수륙재가 근대와 근대 이전 혹은 중세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설명은 이 글말이 성립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10) 智禪 編, 『五種梵音集』(HD12, 168~169); 智還 集, 『梵音刪補集』(HD11, 505~523).

한다. 이것을 해명하면 이 글말이 주제에 근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관심 있는 독자들이 이 글말에 동의하는 데 크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서 이 장에서는 첫째 의문(儀文)의 선택성, 둘째 설단(設壇)의 체계성, 셋째 설행(設行)의 분별성, 넷째 대행(代行)의 명료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근대 이전 수록재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 수록재의 양상에서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잖은 독자들은 이것들의 개념이 다소 생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것은 의례의 설명이나 이해를 개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네 가지 개념어를 중심으로 수록재와 그 양상을 설명하면 불교의례를 학문의 영역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논의를 시작해 보자.

1. 의문의 선택성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록재의 의문을 보면 진관사와 백운사의 수록재는 『결수문』을 바탕으로 편집한 것을 설행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삼화사수록재는 『중례문』을 바탕으로 편집한 의문으로 수록재를 설행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록재에서 수록재 의문을 변경하거나 다르게 설행하면 지정 당시의 원형으로 설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렇지만 전통 수록재에서 단일의 의문을 고정해 놓고 수록재를 설행하였다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 까닭은 의례 상황이 고정적이지 않은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에 전해지고 있는 수록재 의문은 『중례문』·『결수문』·『지반문』·『자기문』·『배비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문들은 수록재 의문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문만 가지고 수록재가 행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작법절차”와 같은 의례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다. “작법절차” 가운데 비교

적 고본은 1496년 『진언권공』에 합편된 「작법절차」와 「삼단시식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법절차」는 작법의 절차, 법석을 짓는 절차로서 현행 영산재의 바탕 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삼단시식문」은 『결수문』을 간략화하여 놓은 의문이다. 이 두 의문의 절차는 영산작법과 같은 법석이나 수륙재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영산재, 수륙재라는 명칭이 불필요한 것이다.

근대 이전의 수륙재는 설판재자의 상황에 따라 위에서 열거한 의문을 선택하여 수륙재를 설행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적지 않다. 먼저 설판재자의 상황에 따른다는 것은 “무릇 재를 설치할 때 7주야나 5주야나 2[3]주야나 하는 것은 재물과 재력의 규모의 다소를 기미를 봐서 설판(設辦)하는 것이 마땅하다.”¹¹⁾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물과 재력의 규모에 따라 설단의 종류와 일차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차가 길어지면 거기에 따라 재회 또한 『자기문』이나 『지반문』 등 대례의 의문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회주나 병법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신간산보범음집』(1713)에는 다음의 구문을 볼 수 있다. “당일재회의 작법을 시작할 때 범음을 아는 이가 회주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엎드려 ‘작법은 무엇을 할까요?’라고 묻는다. 회주는 명할 것이 있으면 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례대로 행하시오.’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하면 범음은 ‘예’하고 물러간다.”¹²⁾ <중례작법절차>에도 범음을 아는 이가 병법 앞으로 나아가 법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知梵音 進乘法前 問作法式).¹³⁾ 위의 기사는 수륙재 때 의문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산(魚山) 승려의 법상에 의문을 모두 갖춰 놓고 있는 장면을 봉서암감로탕에서 볼 수 있다.¹⁴⁾ 또 다른 예로는

11) 『仔夔文節次條例』(KR2, p.687하.)

12) 『新刊刪補梵音集』(KR2, p.581하.)

13) 『新刊刪補梵音集』(KR2, p.591상.)

14) <봉서암 감로도>(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1759)에는 『중례문』·『결수문』·『어산

『지반문』·『중례문』·『결수문』 등의 간행 사례이다. 서지학적 연구에 의하면 『결수문』과 『중례문』이 같은 해에 같은 사찰에서 간행된 사례가 아홉 곳, 가까운 해에 같은 지역에서 간행된 사례 네 곳이 조사되고¹⁵⁾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면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특정 지역이나 사찰에 따라 의문이 『중례문』이나 『결수문』으로 정해져 봉행되었다면 다른 계통의 의문을 굳이 함께 간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록재 의문은 당해 당일 범회 도량의 재 규모에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의문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수록재가 고정화되지 않았으며, 의례 실행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광략(廣略)¹⁶⁾의 대기이설(對機已設)과 같은 것으로 현실적이고 보편적이며 특수한 한국불교의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결국 근대 이전의 수록재는 현행 수록재 실행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특정 의문을 바탕으로 편찬한 실행대본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보원사에서 유사한 수록의문인 『지반문』(1565)·『중례문』(1566)·『결수문』이 간행된 연유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집』·『운수단』의 의문이 놓인 여산 상을 볼 수 있다. 강우방·김승희, 『감로탕』, 예경, 2010, p.140; 鄭明熙, 『朝鮮時代 佛敎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32.

15) 『결수문』과 『중례문』을 동년 동지역에 간행한 사례로는 1529년 무량사, 1538년 광흥사, 1574년 송광사, 1604년 능인암, 1634년 대흥사, 1659년 서봉사, 1660년 흥국사, 1661년 신흥사, 1694년 해인사 등 아홉 사례가 보이고, 근년 동일지역 간행 예는 1513년, 1514년의 대광사, 1566년 1565년의 보원사, 1573년 1579년의 덕주사, 1581년 1580년의 서봉사 등 네 곳이 발견된다.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p.64;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판본고」, 『서지학보』 제37호, 한국서지학회, 2011, p.31;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pp.173~175;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상,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4, p.373에서 재인용.

16) 廣略의 예는 수없이 많지만 간단한 예로 “夜短則運心偈呪云, 從容則香羞羅列云” 등이 있다.

17) 이성운, 「영산재와 수록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73, 한국불교학회, 2015, pp.432~433.

있다. 의문의 선택성에 의해 수륙재를 설행하였다는 것이 근대 이전과 현대 수륙재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설단의 체계성

설단은 단을 시설한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단(壇)은 만다라라고도 하며, 토단(土壇)을 쌓고 그 위에다 제존(諸尊)을 그려놓고 행사가 끝나면 부수어 버린다. 곧 단은 제존을 모셔놓는 곳이라는 의미를 안고 있다. 설단의 체계성은 제존을 모셔놓는 단을 마련하는 설단(設壇)은 제존을 청해 모시는 의문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문이나 의례에 의해 제존을 청하며, 그 청하는 제존이 자리해서 공양을 올리거나 옹호와 가지를 청하는 의식을 봉행해야 하므로 설단의 체계성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 거행되고 있는 한국불교 수륙재에서 설단의 체계성이 의례나 의문과 일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그 까닭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설단의 체계성에서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신중단, 중단의 그 위격과 역할이다. 현재 대개의 법당에는 남향의 주불전과 좌측의 신중단, 우측 맞은편의 영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중단의 신중은 104위 신중이나 혹은 39위 신중을 모시고 있다. 104위 신중을 청해 모실 때는 대창불 의식이, 39위 신중을 청해 모실 때는 화엄창불 의식이 봉행된다. 또 104위 신중을 간략히 한 ‘소창불’ 의식도 봉행된다. 이때 이분들은 그림으로 혹은 번으로 모신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대창불>이나 <화엄창불>과 같은 의식이 수륙재 등에서 설행되고 있으며, 그 의문은 <신중작법>이라고 칭해진다. 내용을 보면, 옹호계, 거목(나무 화엄회상 옥색제천중, 나무 화엄회상 팔부사왕중, 나무 화엄회상 호법선신중)을 칭하고 39위 신중을 상중하로 나누어 봉청해 가영을 하며 맞이하여 예

경을 올리고 차를 올리고 찬탄을 하며 마치고 있을 뿐이다.

서울의 진관사 수록재 의문에는 대창불(104위 신중)의 가영을 별도로 제시하며, 39위 신중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협주하고 있는데, 이는 39위 신중을 104위 신중의 약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4위 신중의 약례는 ‘소창불’로 ‘대창불’의 신중 위목을 17위로 합편하여 소칭하는 것이지, 39위를 칭하는 ‘화엄창불’이 아니다. 이것은 신중에 대한 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위(中位)와 신중(神衆)의 차이를 바르게 확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를 보자. <신중작법>에는 신중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중이 공양을 받기 위해 칭해지는 것인지, 법회도량의 옹호를 부탁하기 위해 칭해지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과거의 수록재 의례인 『오종범음집』(1652/1661)의 설단을 보면 북측 중앙의 상단을 중심으로 좌측에 중위단·당산단·성황단·오로단·종실위의 다섯 단과 우측에 제산단을 비롯해 풍백단·가람단·사자단(使者壇)·가친단(家親壇)의 다섯 단이 설단되고 남측에 하단(無住孤魂壇)이 시설되고 있다.¹⁸⁾ 또 『범음산보집』(1723)에는 여기에 다섯 단이 더해진 ‘17단’이 설단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⁹⁾ 더해지는 다섯 단은 정문 아래 예적단, 그 아래 명왕단과 사왕단, 그 아래 제석단과 팔부단이 시설되고 있다. 이 배설도(排設圖)는 같은 『범음산보집』 도림사 판에는 ‘12단’이라고 지칭하고 있다.²⁰⁾ 더해지고 있는 다섯 단을 셈하지 않는 연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신중은 도량 결계와 옹호 등의 역할을 수행(遂行)해야 하므로 설단은 하되 그 숫자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²¹⁾

18) 智禪 編, 『五種梵音集』(KR2, p.195상).

19) 智還 編, 『梵音刪補集』(KR3, p.4상).

20) 智還 編, 『梵音刪補集』(KR3, p.102상).

21) 이성운, 「보원사 판각 의문의 의례적 분석」, 『내포가야산 보원사와 수록재』(보원사수록재설행위원회, 2020, p.105).

결국 다섯 단의 신중들은 실제 그 역할이 도량의 결계(結界)와 호지(護持)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반문삼주야12단배설지도>는 또 하나 중위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명부시왕등중; 판관귀왕 장군동자; 종관위·고사위”로 명부시왕과 그 권속이라는 것이다. 명부단을 중위단에 모시고 권공하는 것은 재회의 목적이 망자에게는 ‘업장소멸’과 ‘왕생극락’을, 생자에게는 ‘현증복수(現增福壽)’와 ‘당생극락(當生極樂)’을 이루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위단과 신중단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대창불이나 소창불, 혹은 화엄창불로 신중작법을 하며 공양하고 찬탄하는데 그 신중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결계와 호지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역할이 구별되고 있는가. 이 사실이 의문(儀文) 속에 내재된 의문은 『지반문』밖에 없다. 『지반문』에 등장하는 신중은 다음과 같다. 가람신과 옥택신을 먼저 청한다. 이어 예적금강성자, 십대명왕, 범석사왕천룡팔부, 복덕대신과 병중권속, 성황당경 제묘후왕과 주거육신 등 5위의 신중으로 나눠 청해진다. 이분들은 중위의 격이라고 단언할 수는 있지만 중위단에 모셔지는 분들이라고 할 수 없다. 이분들은 도량의 호지(護持)와 결계(結界)를 맡는다. 이분들을 청할 때 염송하는 진언으로는 각 본존진언과 팔부소청진언과 소청진언이 쓰인다. 이 결계는 지방(地方), 방우(方隅), 허공(虛空)의 순서로 결계한다. 지방의 결계는 지상에 물을 세 번 뿌리고, 또 사방에 세 번 뿌린다. 다음에는 허공은 향을 공중에 세 번 끼치는 것으로 지상과 지방과 허공의 결계를 실행한다. 이때 활용되는 진언은 길리분노진언, 금강부심진언, 소실지진언이 활용된다.²²⁾

신중의 역할 ‘호지결계’ 가운데 결계를 하고 그들이 호지(護持)하는 위치에 대해 『지반문』에는 이렇게 협주하고 있다. 예적원만성자는 정중앙의 바깥에 서고, 십대명왕은 도량의 왼쪽에 서며, 범석과 사천왕 및

22) 『志磐文』(KR1, pp.575~579).

천룡팔부와 권속은 오른쪽에 서고, 복덕대신과 권속들은 도량 출입문 양쪽에 머물러 선다. 도량을 결계하고 호지하는 제 성중의 위치는 도량을 사방을 호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 설단과 번 곁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한다. 결국 ‘작법절차’나 의문들에 의해 설단 등의 체계성이 지켜져 왔다고 본다면, 17세기 이전 보원사수륙재의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3. 실행의 분별성

실행의 분별성이란 의례를 실행함에 소임을 나눠서 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의 불교의례는 이와 같은 성격으로 실행되었다. 물론 현재 수륙재에도 소임은 나눠진다. 그렇지만 현재의 소임은 단일 아사리단에서의 소임이 나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 법사단(法事團)의 소임은 직렬형의 의례로 실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분별성을 바탕으로 하는 의례는 병렬형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의례의 소임을 표시하는 법사방목(法事榜目)이 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임을 나열해 보자. “중단(中壇), 사단(使壇), 고단(庫壇), 마단(馬壇), 상소(上疏), 대령(對靈), 영반(靈飯), 헌식(獻食), 시식(施食)”²³⁾ 등이다. 이 소임은 각 단의 의식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도 일부 수륙재나 예수재 등에서 고단이나 마단은 직렬형 의례에서 벗어나 별도로 병렬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단일 법사단에 의해 실행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대 이전의 수륙재는 별도의 소임들에 의해 나눠 실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수륙재가 병렬로 분별되어 실행이 되었다고 보이는 모습은 삼주야, 오주야, 칠주야 수륙재에서 각단으로 실행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모습은 수륙재의 저본 의문을 『결수문』이나 『중례문』으로

23) 麻谷寺 所藏 『梵音刪補集』; 심상현,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p.92.

확정해놓지 않은 것과 동일한 맥락이지만 일주야인가, 삼주야·오주야·칠주야인가 하는 것과는 별도로 『결수문』이나 『중례문』에 의거 수륙재를 행할 때는 수륙재를 시작하는 시각이 미시(未時)나 신시(申時)나와의 차이에 의한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삼화사 수륙재에서 『중례문』을 바탕으로 3일재 수륙재를 봉행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행의 분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현대 수륙재와 달리 근대 이전의 수륙재는 설행의 분별성이 분명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보원사 수륙재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4. 대행의 명료성

대행의 명료성은 의례의 주체와 그것을 대행하는 자의 모습이 명료하게 구분되는가를 의미한다. 수륙재의 설판재자는 재주라고 할 수 있고, 수륙재를 주관하는 이를 회주(會主) 또는 회수(會首)라고 한다. 회주나 재주의 명에 의해 수륙재가 설행된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대행의 명료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행의 명료성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필자는 의례 설행의 주체와 대행자의 위치(자리)가 힌트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한다. 의례의 주체와 대행자의 위치를 보면 특정 행위[주로 臺詞]를 대행하는 것인지, 이와 달리 의례를 완전히 대신해주는 것인지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무리는 있겠지만 이를 ‘대행’과 ‘대신’으로 구별해보고자 한다. 대행과 대신은 둘 다 대신하는 것이기는 비슷하나 주로 언표에 주로 한정하고 이를 대신하는 것을 ‘대행’이라 하고, 예경 등의 의례 행위까지를 대신하는 것을 ‘대신’이라고 구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수륙재 의례의 과거를 재현하는 데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대개의 수륙재를 비롯하여 권공과 시식 의식 때 의례를 주관하는 스님은 불단을 향해 서서 의례를 진행한다. 재자는 불전을 향하는

것이 맞지만 회주는 붓대를 대신하는 자리이므로 붓대의 옆이나 붓대의 앞에 앉아 의례를 진행해야 한다.²⁴⁾ 가령 거양(擧揚) 의식은 재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수록제에서 이것을 확인해주는 대표적인 자료의 하나에는 ‘감로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회를 대행하고 있는 스님들이 어디에 서고 어디를 향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료가 ‘감로도’라는 것이다. 20세기 이전 생성된 ‘감로도’에는 의례를 봉행하는 스님들이 현재와 같이 설판재자나 동참자들의 뒤쪽에서 의례를 행하는 장면을 보기는 어렵다.²⁵⁾

또 의례의 주체가 ‘설판재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료는 ‘소문(疏文)’이라고 할 수 있다. 소문에는 설판재자가 대승법사 10위와 병법아사리 1인과 법사승 1단에게 모처로 가서 며칠 간의 수록제를 열 어달라고 명하는 서술이 나타난다.²⁶⁾ 이때의 설판재자는 대체로 국왕이나 왕후장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일반화되면서 대행자가 주체자로 이해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대행자가 주체자의 위치에서 언설(言說)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삼가 병법스님과 아사리 스님 한 분 및 법사스님들이 하나의 단을 세우고 금월 금일을 선택하여 모처에서 국행수록도량을 개최합니다.”라는 식이다. 여기서 삼가는 이는 설판재자이고 설단하는 이는 아사리스님이다. 그런데 번역에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 소자(疏子, 아뢰는 자, 주체)가 의례의 주체자인지 대행자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문(疏文)을 대신 쓴 이는 글을 쓸 줄 아는 이이지만 소의 주인은 재주나 회수(會首)이다. 현재 대개의 한국 불교 수록제에는 회수라는 수록회의 주인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蒙山施食念誦說法儀』(藏外佛經 第28冊, 213방16쪽), p.437.

25) 1939년 흥천사감로탱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불단을 향해 의례를 봉행하는 승려들을 볼 수 있고, 그 이전의 감로탱에는 불단의 옆에서 의례를 봉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6) 『天地冥陽水陸雜文』(KR1, 553).

그렇지만 전통 수륙재에서는 이것이 달리 생각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오종범음집』의 <靈山會中 108相當數>에 의하면 많은 수의 승려들이 수륙재에 참여하고 있다. 영산회는 수륙재의 재전작법으로 오전에 『법화경』을 염송하는 법석이다. 법석이 당일 또는 칠칠재 혹은 49일기도 형식으로 봉행되는 현대 의례와 달리 칠주야(七晝夜) 수륙회에서는 재전(齋前, 점심, 오전)에 『법화경』 7권을 7일 동안 매일 1권씩 염송하는 것이다.

수륙재의 발상지 중국불교에서는 내단에서 수륙재를 7일간 봉행하며, 외단의 6단(대단의 양황참, 화엄단, 법화단, 능엄단, 제경단, 정토단)에서는 법석이 7일간 진행된다.²⁷⁾ 이와 같은 모습은 한국불교 의례 역사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영산재의 원형인 “작법절차”에 5종의 거불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해당 경전이 염송되거나 예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례실행의 주체와 대행자의 위치와 진술에서 그것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의례의 주인은 사라지고 대행자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적어도 근대 이전의 의례에는 그와 같은 혼선은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보원사수륙재도 그랬을 것이다.

Ⅲ. 현대 수륙재의 양태

현대 수륙재의 보편적인 양태를 통해 보원사수륙재의 특징을 찾아보고 보원사수륙재의 바람직한 내일을 설계할 때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과거의 보원사수륙재에 대해 의미 있게 논의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라고 할 수 있다. 6세기 경에 보원사가 창건되고 화엄십찰로 번성하였고, 고려 초 법인 국사의 활동무대였다는

27)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卷第四, 上海佛學書局, 1924, pp.10~12.

것은 역사로 분명히 증명된다. 그렇지만 16세기 중반 보원사에서 적지 않은 수록의문이 판각되었지만 수록재 실행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활용되었는지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근대 이전의 수록재에 대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양상을 유추하였다. 그것은 현대 수록재에도 대비할 수 있으므로 이 장에서도 유의미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2020년 가을 보원사에서 실행된 수록재와 2021년 준비되고 있는 현상 등을 바탕으로 현대 보원사수록재의 특징은 무엇이고,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더 있을지를 탐색해 보자.

1. 옛터에 시설한 법당

2020년 10월 보원사지에서 보원사수록재가 실행되었다. 수록재 실행의 제일 조건은 수록재에서 공양을 올릴 존재들을 모시는 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은 만다라라고도 하며 공양받을 이들이 머물게 되는 곳으로 수록재에 소청하는 대상을 감안하여 시설된다.

동향하고 있는 보원사지의 좌측 현 보원사 법당을 바라보는 곳에 괘불을 모신 상단이 설치되었고, 그 맞은 편에 제산단의 의미까지 더해진 영단이 설치되었으며, 맞은편에 중단이, 중단 옆에는 오로단이 시설되었다. 오로단 맞은 편에는 사자단이 시설되고, 남측 괘불을 바라보면서 청법단이 설치되었다. 괘불이 모셔진 단상 앞에 회수와 재주 자리를 마련하였고, 괘불단의 우측에 어산단이 좌측에 작법무승이 자리하는 배치로 수록재의 법당이 건립되었다. 법당의 넓이는 (남향의 전제)동서 약 30미터 남북 40미터로 넓었는데 법당의 가운데 동참자들을 위한 의자가 놓였다.

수록도량 곧 법당의 외부 시설로는 당간지주 옆에 대령소가 마련되었고, 대령하여 모신 혼령에게 목욕을 제공하는 관욕소는 보원사터 탐

앞에 설치하였다. 법당의 사방에는 사천왕이 위요(圍繞)하였다. 그림으로 그려 모신 사천왕을 사방에 배치한 것은 근자 유사 수륙재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수륙재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주전의 좌우 한 편에 영단(고혼 포함)이 시설된 예는 근대 이전의 수륙재 설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앞에서 설단과 관련해 살펴본 『범음산보집』(1723/1738)의 12단, 17단의 예를 보면 가친단이나 종실위단은 좌우에 위치하지만 법계무주고혼단은 남쪽에 괘불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음산보집』의 12단, 17단도 많다고 여기겠지만 18세기 초반 필사된 마곡사 소장 『범음산보집』에는 58단이 설치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불당 앞의 정문을 위시해 천왕문-금강문-외사문(外沙門)의 좌우에 시설하고 있다.

『진언권공』(1496)에 합편된 <삼단시식문>에는 북쪽 벽에 삼보를 앉히고, 삼계제천은 동벽에 앉으며, 대왕·왕후의 선가는 남쪽 벽에 앉는다고 하고 있다.²⁸⁾ 이는 현재의 법당 내의 삼단 설치와 유사하나 법문을 듣는 존재들이 남쪽 벽에 앉는 것이 특징이다. 2020년 보원사수륙재에서도 이를 실현하려고 의도하였지만 제산단의 대상을 영단과 구별하지 않아 실천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제산단(諸山壇)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고금의 여러 대 존속 등을 모시는 단이다. 보원사를 창건하고 유지한 제 고승들을 안치하여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²⁹⁾ 현재 보원사지는 보원사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지만 사용 허가 등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단 등을 완벽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8) 學祖 譯, 「삼단시식문」(KR1, 471, 474, 476).

29) 현재 대개의 수륙재에서는 창건조사 등도 하단에 한꺼번에 모셔놓고 있다. 제산단의 개념을 도입한 수륙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건단과 대령의 의식

건단은 단을 세우는 의식을 지칭하고, 대령은 재주의 가친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보원사수륙재 의문에서는 괘불이운과 영혼식(迎魂式)이라는 전통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현재 실행되고 수륙재의 양태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진관사수륙재에서는 혼령을 맞이하는 대령의식을 먼저 봉행한다. 시련이라는 의식을 일주문에서 행하는데 이는 사실 대령의 연을 옹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의식이다. 그렇지만 대령하는 혼령의 위판을 들고 일주문으로 나아가지만 시련의식절차만 하고 대령의식은 행하지 않고 누각 아래에서 대령을 행한다. 그러다 보니 연에는 옷 등을 실어놓았지만 별도의 상징물을 연에 신는 의식은 없다. 대령의 경우 사명일시식의식에서 볼 수 있는 국혼청 승혼청 고훈청의 삼청(三請)을 행하지만, 사찰의 창건과 중창 등의 인연 있는 선사와 대왕의 위판을 모셔오고 있다. 또 삼화사수륙재의 경우도 시련과 대령을 하였지만 한동안 시련은 대령하는 연을 시위하는 절차라고 하여 별도로 행하지 않다가 근자에 시련 의식을 행향사(行香使)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봉행하려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백운사의 아랫녘 수륙재에서는 하위소청의 25위청을 외대령이라고 지칭하며 행한 뒤에 삼신이운(일종의 괘불이운)을 하고 신중대례를 행하고 있다.³⁰⁾ 신중대례는 옹호불사를 위한 것으로 3위 봉청과 가영 및 헌다로 이뤄지는 신중작법과 달리 신중청의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소청헌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보원사수륙재에서 채택해서 괘불이운 등을 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나 삼신이운 이후에 차서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원사수륙재에서 택하고 있는 건단과 대령에 관련한 의식의 차서와 특징이 무엇인지 훑아보도록 하자. 16세기 중반 수륙재 관련

30) 石峰 編, 『水陸無遮儀禮集』, 아랫녘수륙재보존회, 2013.

의문이 보원사에서 대거 판각되었는데, 수록의문은 말할 것도 없고 『법화경』까지도 수록재의 법석을 위한 것이다. 『제반문』도 시왕청과 예수재, 영산작법과 같은 법석과 관련된 것이며,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도 수록재의 한 부분으로 설행되다가 독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체의 성현과 범부에 공양을 베풀고 시식하는 종합의례인 수록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수록의문 판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원사수륙재의 위상은 다른 수록재 도량과 또 다른 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원사수륙재의 차서 상 특징은 <신중약례절차>(1769)로 헌공을 한 다음 괘불이운의 옹호를 부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신중약례절차>(1769)는 가장 완벽한 신중청 공양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할향에서 시작하며 복청계로 도량을 정화하고, 신중의 3위를 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계수축원으로 마친다. 이어 괘불이운을 행한다. 현재 괘불이운이라고 하지만 괘불이운을 하지 않고 의문만을 염송하는 경우도 있고, 괘불을 조금 이동하여 올리며 하는 경우도 있고, 괘불장소에서 괘불을 이운하는 형식도 있다. 그렇지만 금산사 『제반문』(1694)의 <영산작법절차>에 의하면 괘불이운은 사실 설주이운이라고 할 수 있다. 괘불의 붓다님을 실현할 설주를 이운하는 의식에서 괘불이운이 분화되고 다시 설주이운이 시설된 18세기 『범음산보집』의 양태는 사실 다중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³¹⁾ 『범음산보집(1723)』을 기준으로 보면 괘불이운과 설주이운 의식은 달리 설행되는 의례임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순차 상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³²⁾

掛佛移運: 옹호계, 찬불계, 출산계, 념화계(보살제화), 산화락,
거영산 요잡, 庭中止樂, 등상계(遍登獅子座 共臨十方

31) 이성운, 「영산재의 독립과 변용의 모범 탐색」, 『정토학연구』 33, 한국정토학회, 2020, pp.87~94.

32) 『梵音刪補集』, 465중하.

界 蠢蠢諸衆生 引導蓮花界), 사무량계, 영산예경
 說主移運: 동불계(입산계), 법사계, 출산계, 념화계(영취념화),
 거영산 요잡, 庭中止樂, 등상계(獅子座高廣~), 좌불
 계(世尊坐道場 淸淨大光明 比如千日出 照曜大千界)

괘불에 계신 붓다가 설주(說主)이지만 현실의 인간들에게 법문을 들려줄 법사를 이운해야 하므로 설주이운을 행하게 되는데 보원사수륙재에서는 괘불이운 의식을 마치고 건회소를 아뢰고, 수륙재를 시작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어서 혼령을 맞이하는 의식을 봉행한다.

혼령을 맞이하는 의식을 대령이라고 하지만 대령은 혼령을 대면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행하는 소임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의 금산사 『제반문』이나 “사명일영혼시식의문” 등에는 한결같이 영혼식(迎魂式)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보원사수륙재에서는 그 명칭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1529년 『청문』에 실린 <대령소참>이나 <사문소참(沙門小參)>을 활용하여 16세기 대령의식의 의미를 살렸다.

현재 사문소참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으나 사문소참의 사문은 외호문(外護門) 등으로 사찰의 첫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문(寺門)이라 하지 않고 ‘사문(沙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을 통과하면 사문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혼령을 맞이할 때는 사문 밖에서 행한다. 18세기가 되면 가장 밖의 사문(寺門)으로 일주문이 등장하지만 일주문은 문이라고 할 수 없고 통과,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문소참이 있는 혼령 맞이 의식은 보원사의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전통의 시련절차로 옹호신증으로 하여금 대령의 연을 옹호하도록 부탁드린다. 먼저 시련의식을 행하고 영혼단에서 대령소참을 한다. 변재삼보에 예를 올리고 혼령을 부른다. 혼령을 부르면 곧바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뢰고 하례게송을 한다. 이어 진령게송과 파지옥진언, 멸악취진언, 소아귀진언, 보소청진언으로 혼령을 부른다. 부르면 곧 올 수 있

다는 것을 알려주고, 당해 혼령을 특별히 부르고 법식을 드실 것을 청하는 말을 아뢴다. 향과 등과 차를 올리고 육탕으로 안내하게 된다. 육탕의식은 기존의 관육의식이다. 관육을 마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난 혼령은 성인에게 인사를 올려야 하므로 상단으로 나아간다. 상단의 도량 정문 앞에 이르러 사문소참을 하게 된다.

현재의 대령은 사문소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 법문을 일러드리고 정문으로 들어가서 삼보에 인사를 드리고 청법단[좌]에 위패를 안치함으로써 영혼식이 끝난다. 영혼식을 도입한 보원사수륙재에 이 의식이 정착되려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칠칠법석과 수륙재

전통의 한국불교 수륙재는 일주야, 삼주야, 오주야, 칠주야로 설행이 되었다는 것을 18세기 초반 간행된 『범음산보집』의 차서는 증언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칠칠재는 당일 혹은 1박2일, 2박3일로 설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개의 수륙재에서는 칠칠재의 기도도 병행되고 있다. 칠칠재라고 하면 생전칠칠재이든 사후칠칠재이든 특정 혼령을 위해 서라고 할 수 있다. 보원사수륙재 또한 49일기도도 진행하고 있는데, 경전 염송을 병행하고 있다. 2021년의 보원사수륙재 또한 칠칠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평소에서는 사찰 자체의 스님들과 동참재자 중심으로 설행하고 있다. 하지만 4재에는 범패와 작법무, 화청에 능한 법사 스님을 청해 병행하였고, 5재는 조운선의 난파로 인한 희생자를 위한 안파사 수륙재를 기념하며 간월암에서 진행하였다. 칠칠재의 경우도 대령으로 혼령을 모셔놓고 법화경을 염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동참재자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

일제~육재의 의례는 다음의 절차로 병행한다: 대령소참의식과 관육의식을 한 다음 사문소참은 하지 않고 지단진언으로 단을 가리키며 상단 앞에 이르면 보례삼보를 하고 위패를 받아 자리에 안치하는 수위안좌

를 한다. 이때 안좌계송을 하는데 칠재의 수록재 때 활용하는 안좌계송을 활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생전에 갖추었던 모습과 성품 죽고 나니 아무런 흔적도 없네. 법왕의 궁전에 드셔서 하루 편히 계십시오.”이다. 일반적으로 “我今依教設華筵 花果珍羞列座前 大小依位次第坐 專心諦聽演金言: 내가 이제 교법에 따라 화연을 베풀 꽃과 과일 진수를 자리마다 올렸으니 대소 위계 따라 앉으셔서 붓다님 말씀을 잘 들으소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보원사수록재에서 채택한 안좌계송은 16세기 초반의 『청문』(1529) 등에서 채집한 것으로 당해 혼령을 위해 시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존의 안좌계송은 관음시식과 같은 상시식을 위해 편찬된 계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록재의 성격이 특정혼령을 위한 법석과 성법의 불특정 다수를 위해 시설하는 성격이 함께 있다 보니 본 수록재 이전에 행하는 법석의 대령은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혼령을 안좌한 다음 상단의 권공의식으로 법화경을 염송하고 대비주 복청으로 도량을 엄정한다. 상단의 권공을 올리고 축원을 하며 신중단에 반야심경을 염송하여 마친다. 칠재 때 행하는 본 수록재는 불특정인들을 위한 재회로 작동하고 있다.

당일의 칠재 수록재는 전통의 경제소리(서울시무형문화재 제43호)를 전승하고 있는 법사승들에 의해서 여법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어장을 지낸 동주 원명, 이수자 문현, 정오와 보천, 상현, 현준, 지성, 성운, 보정 등이 범패소리와 작법무로 재장을 장엄하며, 보원사의 상주승려 수법재자 정범, 정경, 선정, 제원 등의 법사와 청신사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수록재는 성현과 범부를 청해서 무차(無遮)로 무차별(無差別)로 시식하는 의례로서 사성에 공양을 올리고 육법에 시식하며 경전을 들려주는 ‘무차평등재회’이다. 칠칠 당일 영혼식과 괘불이운을 위한 신중작법의 옹호발원 등의 전통의식이 복원되어 행해지고 있는 보원사수록재는

수륙재의 본 의미와 정신이 적확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일차비의 자율재장

한국불교의 의례선행 승려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는 격언의 하나로 “一差備, 二중질³³⁾[노릇]”이 있다. ‘차비’는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해 임시로 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儀禮 과정을 준비하여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의례를 준비할 때 갖추어야 할 것은 다양하나 무엇보다 의문(儀文)이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불교의 의례현장[주로 齋場이라 稱해짐]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의문은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므로 준비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과 지식이 소요된다.³⁴⁾ 일차비로 준비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을 비롯하여 수륙 각단의 장엄과 제수 등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보원사수륙재의 차비로 돋보이는 것은 사천왕도를 직접 그려 수륙 도량의 사방을 외호(外護)하게 한 것, 각단을 장엄한 지화(紙花)를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화 제작은 여러 수륙재보존회마다 염색 등을 비롯하여 직접 제작하는 곳이 적지 않다. 삼화사의 경우 염색의 물감을 마련하기 위해 염료를 채집하여 씻고 뿜고 하나하나 염색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³⁵⁾ 지화 부분의 자체 생산은 수륙재의 다른 어떤 분야의 준비보다 그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보원사수륙재에서도 지화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도량에 모시는 번의 생산까지도 자체 수륙재보존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 수륙재교실을 상설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차비 이중질’이라는 불가 재장의 격언은 수륙재와 같은 거대 규모

33) ‘중질’은 純粹韓國語로 보이는데 習慣的으로 익힌 것이라는 意味이다.

34) 2019.10.16.~19일 동안 중국 베이징의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제2회 中韓佛敎學術交流會에서 발표한 필자의 자료 중에서 인용.

35) 이성운, 「수륙재 연유 및 선행과 의문의 정합성」,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화사수륙재문화』, 삼화사수륙재보존회, 2020, p.78.

의 재장에는 소요되는 준비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준비하는 일이 적은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록재를 통해 성인과 범부들께 공양하여 공덕을 짓고, 나도 남도 같이 깨달음을 얻고자, 사중이 일심으로 수행과 교화의 차원에서 거행하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1581년 강당사(보원사)에서 『천지명양수록잡문』을 개간할 때, 교정하고 발을 쓴 정순(正淳)은 화엄학을 참학한 스님이었는데 이 날을 ‘복되고 길한 날’이라고³⁶⁾ 하고 있는데, 현재 수록재를 준비하는 보원사수록재설행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록재를 차비하기 위해 지화를 만들고 성현의 번(幡)과 그림(畫)을 그려 모시며 도량을 장엄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길상(吉祥)한 일이다. 보원사수록재의 재현은 여느 사찰에 비해 빠른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원사수록재를 유튜브로 중계하거나 송출하여 도하(都下)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인다. 필자는 지난 2020년 수록재 때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한 “보통축원”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는 어장스님들을 만난 적이 있다.

사중이 일심으로 일차비를 이루고 있는 자율 재장의 모범을 보이며 수록재를 준비하고, 최고의 어장스님과 법사스님들이 참여해 전통의 범패성과 작법무로 실행하는 “보원사수록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그 개설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6) 『天地冥陽水陸雜文』(KRI, 571하).

IV. 결어

충남 서산의 가야산 보원사에는 16세기 미상(未詳)의 동기에 의해 적지 않은 수륙재 의문이 간행되었다. 수륙재 의문의 발간은 단순히 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판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찰에서 수륙재를 설행해야 할 당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륙재는 사시(四時) 혹은 춘추에 ‘국행’의례로 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성과 육범을 무차로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불법을 들려주어 깨달음을 얻게 하는 수륙재를 설행하기 위해 16세기 중반 수륙재 의문을 판각한 정신을 살려 보원사수륙재설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수륙재를 봉행하고 있는 보원사수륙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았다.

보원사에서 수륙재 의문은 판각되었지만 수륙재 설행의 단초가 따로 보이지 않으므로 보원사에서 판각된 의문과 절차서를 비롯하여 근대 이전의 수륙재 관련 의문과 절차에 따라 보원사수륙재의 과거를 유추하였다.

첫째, 근대 이전의 수륙재는 단일한 의문에 의해 설행되는 것이 아니라 설판 상황에 의거하여 『결수문』·『중례문』·『자기문』 등으로 수륙재가 설행되었듯이 과거의 보원사수륙재도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보원사에서 수종의 수륙의문이 판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찰의 주전과 양서 정문 등에 체계적으로 설단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대개의 수륙재 설단과는 달랐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보원사수륙재도 그렇게 설행되었을 것이다.

셋째, 의례를 설행할 때 그 역할이 나뉘 행해졌고 현재와 같이 일단의 법사승려들이 직렬의 형태로 설행하지 않고 병렬의 형태로 나뉘 행하였다는 것은 소임 등에서 확인이 되며, 보원사수륙재도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의례의 주체는 회수와 재자이고 이것이 과거의 의례에서는 잘 지켜져 왔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회수나 재자의 부재가 있을지라도 그랬을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로는 감로탕 등의 의례스님들의 위치이며, 보원사수륙재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보원사수륙재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원사지 옛터에 수륙도량을 건립하고 있는데, 중앙의 상단에 괘불을 걸고, 좌측에 중단과 오로단을 설치하였으며, 우측에 제산단(諸山壇)을 포함한 영단과 사자단을 설치한 다음 남측에 청법단(聽法壇)을 설치하고 상단 앞 자리에 회수와 재주 석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건단의식에서 전통의 신중청의식을 통해 괘불이운의 옹호를 발원하고 있으며, 혼령을 맞이하는 영혼식(迎魂式)은 16~17세기 형식을 도입한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여느 재장에서는 볼 수 없는 사문소참(沙門小參) 의식을 복원하고 있는 점이다.

칠칠재 기도로 봉행하는 수륙재로 일재에서 육재까지는 경전 염송의 법석을 진행하여 신심을 발양하고 있으며, 2021년의 수륙재 4재에서는 대령 등을 전통의식으로 봉행하고, 15세기 안파도 수륙재의 의미를 살려 간월암에서 5재를 봉행하였으며, 칠재 당일의 수륙재는 경제소리 전승자들이 여법하게 의례를 봉행하고 있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수륙재의 차비를 위해 일차비(一差備)의 정신으로 지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원사수륙재는 보원사의 사부대중이 전통의 수륙재의 복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차(無遮)로 성범(聖凡)에 공양(供養)하고 시식(施食)하며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본래 정신을 여법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 KR 朴世敏 編,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第1~4輯, 삼성암, 1993.
HD 동국대학교출판부, 『韓國佛教全書』 1~14, 1988.

『新刊刪補梵音集』
『仔夔文節次條例』
智禪 編, 『五種梵音集』
智還 集, 『梵音刪補集』
『志磐文』
麻谷寺 所藏 『梵音刪補集』
『天地冥陽水陸雜文』
『蒙山施食念誦說法儀』(藏外佛經 第28冊, 213방16丕),
學祖 譯, 「삼단시식문」

강우방·김승희, 『감로탕』, 예경, 2010,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상,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4.
戴曉雲 校點, 『天地冥陽水陸儀文校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石峰 編, 『水陸無遮儀禮集』, 아랫녘수륙재보존회, 2013.
심상현,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안진호 편, 『석문의범』, 만상회, 1935.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卷第四, 上海佛學書局, 1924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1.
박영만, 「韓國水陸齋儀文의 成立 및 變容 研究」,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8.
송일기, 「생전예수재의 의식집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의 서지적 연구」, 『생전예수재의 불교문화』, (사)생전예수재보존회, 2020.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판본고」, 『서지학보』 제37호, 한국서지학회, 2011.
안계현, 「불교행사의 성행」, 『한국사』 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75.

- 延濟永, 「한국水陸齋의 儀禮와 設行양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민속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4
-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 서지학회, 2011.
- 이성운, 「보원사 판각 의문의 의례적 분석」, 『내포가야산 보원사와 수륙재』(보원사수륙재설행위원회, 2020.
- _____, 「영산재의 독립과 변용의 모범 탐색」, 『정도학연구』 33, 한국정도학회, 2020.
- _____, 「수륙재 연유 및 실행과 의문의 정합성」,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화사수륙재문화』, 삼화사수륙재보존회, 2020.
- _____, 「영산재의 구조와 실행 및 사상과 인식」, 『불교문예』 17,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21.
- 鄭明熙, 『朝鮮時代 佛教儀式의 三壇儀禮와 佛畫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최명철, 「水陸齋의 設行樣相에 대한 比較 研究: 삼화사·진관사·백운사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Abstract

The Past and Present of Seosan Bowonsa Surukjæ
-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bodhi-mandala -

Lee, Sung woon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

Jeon, Young sook

(Researcher at The World Buddha Academy)

This writing considers finding the desirable way of Bowonsa Suryukjæ (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by researching its past and present. Suryukjæ before the modern era is studied in order to find out what Bowonsa Suryukjæ looked like in the past, and its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in the comparison of its current Suryukjæ and the current Suryukjæ in Korean Buddhism.

Suryukjæ before the modern era was not performed with a single program, but with *Gyeolsumun* (結手文), *Jungryemun* (中禮文) and *Jagimun* (仔夔文), etc. based on the situation on its ground. It was performed in the main hall, the eastern and the western buildings, and the main gate of the temple, etc. in parallel by sharing their roles. It seems to have shown clearly that the leader and the performers of Suryukjæ are the subjects of the rites in the past, which is thought to be the same case as Bowonsa Suryukjæ.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Bowonsa Suryukjæ, which is currently set at the site of Bowonsa, is the arrangement of

bodhi-mandala, such as Gwaebul (掛佛, the Buddhist scroll painting) at the top of the center, The Middle altar and Orodan (五路壇, the altar to open the five paths of heaven) on the left, Jesandan (諸山壇, the altar for the mountains) and Sajadan (使者壇, the altar for the messenger) on the right and Cheongbapdan (聽法壇, the altar to invite the Dharma talk) on the south and a leader and a master seats in the upper front.

Also, its other characteristics can be mentioned as follows: through the traditional rite of Sinjungcheong (神衆請, praying to pantheon), they pray good fortune for carrying the Buddhist scroll painting in the ceremonies of setting altar, and introduce the ritual to welcome the spirits (迎魂式) consisting of the formality of the 16th~17th century and restore the ritual of Samunsocham (沙門小參) that cannot be seen in other ritual scene.

Key words

Bowonsa Suryukjae, *Gyeolsumun*(結手文), *Jungryemun*(中禮文), *Jagimun* (仔夔文), Jesandan(諸山壇, the altar), Cheongbapdan(聽法壇, the altar to invite the Dharma talk), the ritual to welcome the spirits(迎魂式)